

## 20,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 -이혼 후 생활변화, 개인적 자원, 대인관계 자원을 중심으로-

권 소 영\* (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)

옥 선 화 (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)

이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 중의 하나이며, 이혼자들은 사회의 소수집단으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,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. 따라서 이혼 후 삶을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규명하여 이혼자의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. 특히 이혼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이혼 후 적응 과정에서의 남녀 차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.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이혼-스트레스-적응 관점에 기초하여 이혼 후 생활변화, 개인적 자원, 대인관계 자원으로 범주화하고, 이러한 요인들이 20,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.

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20, 30대 이혼 남녀를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이혼한 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인 남성 114명, 여성 112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. 먼저 20, 30대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, 이혼 후 생활변화, 개인적 자원, 대인관계 자원 수준을 파악하였고, 남녀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정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. 또한 20, 30대 이혼 후 생활변화, 개인적 자원, 대인관계 자원이 이혼 후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.

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첫째, 20, 30대 이혼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이혼 후 적응 수준이 높았다.

둘째, 가정경제 만족도와 건강의 악화는 20, 30대 이혼 남성과 여성 모두의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쳤다. 20, 30대 이혼 남성과 여성의 이혼 후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정경제 만족도였으며, 건강의 악화도 이혼 남녀의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쳐 현재 가정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혼 후 적응 수준이 높았고, 건강이 악화된 경우 이혼 후 적응 수준은 낮았다.

셋째, 20, 30대 이혼 남성과 여성의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변수들이 차이가 있었다. 남성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원과 의미있는 타자들의 이혼에 대한 태도와 같은 대인관계 자원이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,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생활의 악화라는 이혼 후 생활변화와 자신의 이혼에 대한 태도, 이혼 제기 여부와 같은 개인적 자원이 이혼 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 연구 결과를 통해 이혼 남성과 여성의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요인들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. 따라서 이혼 남성과 여성의 이혼 후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성별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다.